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

가. 출제특징 및 경향

작년 수능과 지난 6월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한문과 평가요소별 배분은 (한자,한자어,성어 : 단문 : 장문 : 한시 → 12:5:10:3)으로서 6월에 비해 학생들이 다소 쉽게 여기는 성어 부분의 문항이 많고 지문도 교과서에 나오는 익숙한 지문이 많아서 그동안 교과서와 학교수업에 충실했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번에 이어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허자' 문항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어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은 반드시 익혀야 함을 알 수 있다.

신유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삽화를 활용한 문제가 3문항나 출제되었으며, 그동안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나온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이 이제는 정착의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서 학생들이 교과서의 문장과 유형별 문항학습을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 한문영역 풀이 및 해설

1. ④

한자의 변천과정을 묻는 문항이다. 제시된 글자는 '冊'으로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 대쪽에 글을 써서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책'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2. ①

제시한 한자의 공통부분을 찾는 문항이다. - 부수(心)가 공통부분

情(정) 뜻, 性(성) 성품, 恨(한) 한하다

3. ③

부수와 획수, 자해를 제시하고 이에 알맞은 한자를 찾는 문항이다.

① 佐(좌) 돕다, 人 5획

② 佳(가) 아름답다, 人 6획

③ 住(주) 살다, 멈추다, 人 5획 (정답)

④ 作(작) 짓다, 人 5획

⑤ 仙(선) 신선, 人 5획

4. ⑤

한자의 형음의를 묻는 문항이다.

光(광) 빛, 歌(가) 노래, 恩(은) 은혜

5. ②

끝말 잇기에 알맞은 한자를 찾는 문항이다.

居處(거처)⇒處身(처신)⇒身分(신분)⇒分斷(분단)

6. ⑤
성어의 공통된 한자를 찾는 퍼즐식 문항이다.
愚公移山(우공이산) : 어떤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先公後私(선공후사) : 공적인 일은 먼저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룸

7. ④
성어에 나타난 숫자의 합(8+1+5=14)을 찾는 문항이다.
八方美人(팔방미인) : 여러 방면에 모두 능통한 사람
九牛一毛(구우일모) : 대단히 많은 것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 또는 아주 하찮고 미미한 존재
五里霧中(오리무중) :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8. ⑤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문장독해에 활용하기 문항으로 '樂'의 문맥적 독음을 파악하여 같은 독음으로 쓰인 한자어를 찾는 것이다.
子孝, 雙親**樂**, 家和, 萬事成. :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거워하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 樂 1. 음악,풍류 (악) 2. 즐기다 (락) 3. 좋아하다 (요)
①安樂(안락) ②苦樂(고락) ③歡樂(환락) ④快樂(쾌락) ⑤聲樂(성악)

9. ④
제시된 삽화는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정답은 '結婚(결혼)'이다.
①發展(발전) ②開業(개업) ③昇進(승진) ④結婚(결혼) ⑤生辰(생신)

10. ②
제시한 성어와 관련된 성어 찾기로서 공통적으로 **'부모'**와 관련이 있다.
昏定晨省(혼정신성) :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새벽에 문안을 드리고 살핌
望雲之情(망운지정) : 타향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자식의 애틋한 심정
出告反面(출곡반면) : 밖에 나갈 때 가는 곳을 반드시 아뢰고, 되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 드린다. '出必告 反必面'에서 나온 말.

①百年河淸(백년하청) :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②風樹之歎(풍수지탄) :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탄식 (정답)
③羊頭狗肉(양두구육) : 겉과 속이 같지 않음
④尾生之信(미생지신) : 우직하게 약속만 굳게 지킴
⑤敎學相長(교학상장) :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보아야 학문을 성장시킬 수 있음

11. ④
성어의 속뜻을 알기 문항이다.
④三人成虎(삼인성호)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듣게 되면 진실로 여겨짐
狐假虎威(호가호위)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12. ⑤
두 문장의 對句(대구)를 이용하여 괄호 안의 한자 찾기
智者千慮, 必有一失 :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천 번을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의 실수가 있고,
愚者千慮, 必有一**得** :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천 번을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의 **얻음**이 있다.

13. ③
글이 중심내용 찾기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 남이 한 번을 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자기는 그것을 천 번을 하고, 남이 열 번을 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자기는 그것을 천 번을 한다.

14. ④
제시한 한역속담과 속담에 관련된 성어 찾기
.隨友適江南 :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①走馬看山(주마간산) : 일이 몹시 바빠서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볼 틈도 없이 대강대강 훑어보고 지나침
②牛耳讀經(우이독경) : 어리석어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
③目不識丁(목불식정) : 눈으로 고무레를 보고도 '고무레 정'자를 알지 못함.=一字無識(일자무식)
④附和雷同(부화뇌동) : 천둥이 치면 만물이 응하듯이 자기의 주장 없이 무조건 남의 의견을 따름
⑤一石二鳥(일석이조) :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득을 얻음 = 一擧兩得(일거양득)

15. ②
제시된 삽화의 내용과 관련있는 성어를 찾는 문항
같은 말이라도 곱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①坐井觀天(좌정관천) : 견문이 좁음
②於異阿異(어이아이) : 어 다르고 아 다르다. 같은 말이라도 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전해짐. (정답)
③矯角殺牛(교각살우) : 조그만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크게 그르침
④烏飛梨落(오비이락) :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같은 때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음
⑤馬耳東風(마이동풍) :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음

16. ③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는 문항으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不聞不若聞之, 聞之不若見之, 見之不若知之, 知之不若行之
듣지 않는 것은 듣는 것만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고, 보는 것은 아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은 행하는 것만 못하다.

17. ①
제시된 문장의 문맥에 알맞은 한자 찾기
忠**言**逆於耳, 而利於行 :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言勿異於行, 行勿異於**言** : 말은 행동과 다르게 하지 말고, 행동은 말과 다르게 하지 말라

<18~19> 해석
하진'은 일명 용문이라고도 하는데, 물이 험하여 (배가) 통과하지 못하고 물고기나 자라등도 올라갈 수 없었다. 강과 바다의 큰 물고기들이 수천 마리나 용문 아래에 모여들었으나, 올라갈 수 없었고, 오르면 용이 되었다.

18. ③
문장 속의 한자어의 짜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 大魚(대어) : 큰 물고기 (수식)
① 道路(도로) : 길 (병렬)

② 善惡(선악) : 선과 악 (병렬)
③ 少年(소년) : 어린 나이 (수식) (정답)
④ 草木(초목) : 풀과 나무 (병렬)
⑤ 入學(입학) : 학교에 들어가다 (술보)

19. ⑤
㉣薄集龍門下數千, 不得上 : 수천 마리나 용문 아래에 모여들었으나, 올라갈 수 없었다
→ 성공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20~21> 해석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한데, 사람이 귀한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맹자가 말하기를,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고,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고."고 했으니, 사람이 되어 이 다섯 가지 도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면 금수와 다름이 없다.

20. ②
문장에 빠진 자를 문맥으로 파악하여 찾는 문항
五倫(오륜)

21. ①
문장해석
㉡其違禽獸不遠矣 : 그 짐승을 벗어남이 멀지 않다. 즉, 짐승과 다름이 없다.

<22~23> 해석
정승 홍서봉의 어머니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거친 밥과 나물국도 매번 거를 때가 많더니, 하루는 여자종을 보내어 고기를 사서 오게 하여 고기의 빛깔을 보니 독이 있는 것 같았다. 여자종에게 물었다. "파는 고기가 몇 덩이쯤 있었느냐?" 이에 머리 장식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여자종으로 하여금 그 고기를 다 사오게 하여 담장 밑에 묻게 하였으니, 남들이 사서 먹고 병이 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22. ⑤
문장형식 문제 (의문형)
有幾許塊耶 : 몇 덩이쯤 있었느냐? (의문형)

①天時 不如地利 : 하늘의 때는 땅의 유리함만 못하다 (비교형)
②二牛 何者爲勝 : 두 마리의 소 중에 어느 놈이 나은가? **(의문형) (정답)**
③忠臣 不事二君 :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부정형)
④積功之塔 豈毁乎 : 공을 들인 탑이 어찌 무너지겠는가? (반어형)
⑤農者 天下之大本也 : 농업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평서형)

23. ⑤
글의 내용에 없는 삽화 찾기
⇒ ⑤의 사온 고기를 맛있게 먹는 내용은 없다

<24~25> 해석
맹자가 어렸을 때 이미 다 배웠다고 돌아왔는데, 그의 어머니가 마침 베를 짜다가 물었다. "배움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느냐?" 맹자가 말하였다. "그저 그렇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 짜던 베를 칼로 끊으니,

맹자가 두려워하며 그 이유를 물으니 맹자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학문을 그만두는 것은 내가 이 짜던 베를 끊는 것과 같다.” 맹자는 두려워하여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배우기를 쉬지 않고, 자사를 스승으로 섬겨 마침내 천하의 이름난 유학자가 되었다.

24. ①
문장 속 어구 풀이
① ㉠旣 : 앞으로 × ⇒ **이미**

25. ③
해석순서
以刀斷其織 : 칼(刀)로써(以) 그(其) 짜던 베(織)를 끊었다(斷)

<26~27> 해석
고기에 이르길 :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탐하여 구하니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보니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할만 했다. 이에 천부인 3개를 주어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니 그곳을 ‘신시’라 했고, 이 사람을 환웅천왕이라고 했다.

26. ④
문장 속 어구 풀이
④ ㉣理 : 이해하다 × ⇒ **다스리다(=治)**

27. ②
어조사 ‘於’의 통용자(通用字) 찾기
於 = 乎 = 于

<28~30> 한시해석
(가)
白頭山石磨刀盡 : 백두산 돌은 칼 갈아 다하고
豆滿江水飮馬無 : 두만강 물은 말 먹여 다하니
男兒二十未平國 :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정 못하면
後世誰稱大丈夫 :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하리요

정리
형식 : 7언절구
주제 : 장수의 웅혼한 기상
감상 : 조선 세조 때 장군 남이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후 백두산에 올라 지었다고 알려진 이 시는 훗날 남이가 일찍부터 반역의 마음을 먹었다는 증거로 활용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훈신, 유자광의 음모로 이 싯구 중 男兒二十未平國을, ~ ~未得國으로 바꿔 역모 누명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나)
林亭秋已晩 :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저물었으니
騷客意無窮 : 시인의 뜻(시상)은 다함이 없네.
遠水連天碧 : 먼 강은 하늘에 이어져서 푸르고
霜楓向日紅 :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붉네.
山吐孤輪月 :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내고

江含萬里風 : 강은 만 리의 바람을 머금었네
寒鴻何處去 : 변방의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聲斷暮雲中 : (기러기)울음 소리 저물녘 구름 속에 끊어지네.

정리
형식 : 5언율시
시간적 배경 : 늦가을 저녁
주제 : 늦가을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쓸쓸한 정취
감상 : 율곡 이이선생이 지은 화석정에서 바라본 쓸쓸한 가을 풍경을 묘사한 시이다. 늦가을의 쓸쓸함이 저무는 산과 강의 정경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함련(頷聯)과 경련(頸聯)은 대우(對偶)를 이루고 있어 율시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 특히 푸른 강물과 붉은 단풍의 색채 대비가 돋보인다.

28. ①
시어풀이
① ㉠磨刀 : 칼을 차다 × ⇒ 칼을 갈다

29. ③
시의 분위기 ⇒ 기상의 웅혼함

30. ①
시의 형식과 감상
① (가)의 형식은 **7언절구**이다